

##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김 경 선\*\*·이 지 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며 행복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대두되었다. 건강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여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수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 질병에 대한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달되어 가고 있다(김신정 등, 1997).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망의 원인중 예방이 가장 가능한 요인은 흡연으로 밝혀졌으며(김문실 등, 1997; McDermont, 1992; Penner, 1989),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남정자(1997)의 보고에 의하면 1995년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5.0%로 1989년 3.9% 보다 증가한 반면, 남성의 흡연율은 1995년에 67.7%, 1989년에 70.8%로 감소하였으며,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 과거 10년동안 10배나 증가해 왔다는

보도(KBS, 1999년 5월 31일)로 여성흡연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여성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흡연여성은 비흡연여성에 비해 사산율이 30%나 높고, 주산기 사망률도 26%나 높으며 임신중 모체의 흡연은 저체중 출산, 돌연태아사망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선천성 기형, 호흡기질환,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장애와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혜원, 1999).

또한 대학시절은 인간발달의 전과정을 통하여 볼 때 최고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시기이며 전신체기관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의 전가를 망각하거나 경시하며, 건강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훗날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며 이 세대의 주인공임은 물론 젊은 시절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 서툰 아니라, 그 다음세대들의 양육과 역할모델로서도 중요한 일이다(김문실 등, 1997). 특히 여대생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통해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대생에게 있어서 건강문제는 매우

\* 이 논문은 1999년 원광보건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조교수

\*\*\*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중요시되어야 한다(김신정 등, 1997)

과거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올바른 건강행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단순가정에 근거하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교육의 주된 방향이었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5)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 중 83.2%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청소년의 흡연률은 이러한 지식여부가 금연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신성례, 1997). 박오장 등(1988)도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행동유발까지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지식을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재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andura(1982)는 지식과 행동 사이를 자기준거적 사고가 매개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자기 준거적 사고를 자기효능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자기효능은 어떤 행동을 택하고,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김남성, 1985; Bandura, 1977b) 자기효능은 행동변화의 주요 예측인자로서 설명되고 있다(Gortner & Jenkins, 1990; Hickey, Owen & Froman, 1992). 따라서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흡연 여대생들이 그들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흡연행위예방과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건강측면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여대생의 흡연과 환경적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흡연행위예방과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적 요인과 흡연 여대생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②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본다.
- ③ 여대생 흡연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본다.
- ④ 여대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 3. 용어의 정의

### 1) 환경적 요인

· **이론적 정의**: 성장하고 있는 인간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개인, 가정, 학교, 사회로 구성된다(이지원, 1998; 최은숙, 1995).

· **조작적 정의**: 여대생의 흡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관련특성, 사회관련특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정도로 구성된다.

### 2) 자기효능감

· **이론적 정의**: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이지원, 1998; Bandura, 1977b; 김남성, 1985).

· **조작적 정의**: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Oh(1993)에 의해 번역된 자기효능척도를 이지원(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5점 척도의 도구로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 고찰

### 1. 여성흡연과 환경적 요인

흡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건강행위로(정향미, 1998; US DHHS, 1989),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년전부터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흡연율은 50%이상 감소한 반면, 한국의 경우 흡연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전삼임 등,

1992).

한국성인의 흡연율은 20-39세 남자에게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있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55.7-78%, 여대생의 경우 1.3-19%에 이르며 여대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서일 등, 1988). 맹광호(1988)에 의하면 남자사망의 16.6%, 여자 사망의 3.5%가 흡연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고, 흡연관련성이 높은 암이나 만성퇴행성 질환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이 지적되었다. 흡연은 양과 시작연령에 따라 폐암발생과 관계가 있어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폐암발생률이 높으며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흡연량에 따라 증가한다(김문실 등, 1997; Anderson, 1985).

특별히 흡연은 여성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산모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모체와 태아의 헤모글로빈을 비활성화시키고 니코틴의 혈관수축작용으로 인해 태반혈류감소, 식욕감소를 일으킨다.

흡연하는 여성이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배나 되며(Fielding, 1985), 조산, 사산과도 관련이 있어 신생아 사망을 증가시킨다(Penner, 1989). 흡연여성에게 불임률은 높으며 비임신시 흡연은 조기폐경, 골조골증, 자궁경부 이형증을 증가시키며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색전증의 위험을 높인다(Clarke, 1985).

어머니의 흡연으로 어릴때부터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어린이에게서 천식음과 진성천식이 많이 나타나며 임신시 어머니의 흡연은 출생시 아기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며(이수경, 1987), 부모의 흡연은 청소년 자녀의 수동적 흡연으로 인해 이후에 흡연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Brink, 1988).

여성은 신체적으로 특별한 생리현상과 관련된 생활사건으로부터 많은 건강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매우 크다. 여성은 모성으로서 후대의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인력활용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므로 여성의 건강문제는 더욱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매희 등, 1995). 이와같이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여대생의 흡연행위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김문실 등, 1997).

여대생의 흡연은 호기심과 반항심으로 시작되며 습관적으로 또는 심리적 갈등을 느낄 때 흡연을 하게 된다. 가벼운 흡입, 깊은 흡입방법으로 흡연하며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 타인의 영향, 접근가능성이 흡연을 촉진 또는 강화시킨다. 흡연후 여대생은 건강상태의 변화와 정서적인 이완, 사회관계의 변화등을 경험한다. 여대생의 흡연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은 흡연동기가 남성과 다르고 흡연에 대한 중심적인 관념 또한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함께 가지고 있어 남성흡연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으로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 흡연후 변화에서 남성흡연과는 달리 사회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는 여대생이 젊음으로 인해 건강에 대해 자만하고 또한 자신에게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여대생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다(김문실 등, 1997).

흡연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시간, 장소, 경제적 인 요소가 흡연을 촉진시키는 요소임을 나타내는데 여대생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을 받아 흡연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남성흡연과는 달리 여성흡연의 경우에 흡연에 대한 접근가능성 정도가 흡연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김문실 등, 1997).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상의 변화중 호흡기계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특히 여대생의 경우 체중의 변화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체중의 감소를 위해 흡연을 시도하고 금연할 경우 체중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문실 등, 1997).

김중성 등(198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요

인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양상을 조사하였는데, 현재 흡연자는 전체의 43%이며 그 중에서 남자 59.8%, 여자 10%이었으며 첫 흡연시기는 고졸이후가 60.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흡연에 대한 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 가족의 분위기가 자유로운 경우에 흡연율이 높으며, 흡연동기는 정신적 이유, 호기심, 친구권유, 사교적 이유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연에 대하여는 59.4%가 금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 흡연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경우, 가족분위기가 엄격한 경우, 월평균 수입이 적은 경우 금연하려는 의도가 많았다.

문선영(1995)은 흡연과 금연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심리적 불안감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울 때 흡연을 극복하기 힘들었으며 정신적인 방황을 흡연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장기간의 건강행위는 건강습관이 되기 쉽고, 일단 건강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김애경, 1994)는 것을 생각해볼 때,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생은 성인중기 및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중기 및 후기의 건강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며 미래의 부모로서 이들의 교육정도나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등이 자녀의 건강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Yarcheski와 Mahon, 1989) 이들에 있어 금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 2. 여성흡연과 자기효능감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지식과 행위 사이를 중재하는 자기참고적 사고 때문이며 인간이 사회심리적으로 기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기참고 사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효능감이다(이지원, 1998; Bandura, 1986).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간주되고 있는 이 개념은 행동변화와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많이 받

고 있다. 특히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추구를 위한 새로운 행위를 획득하거나 지속해왔던 행위의 중단, 중단했던 행위를 재개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김종순, 1995; 김종임, 1994).

Bandura(1977b)에 의하면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효능기대)과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결과기대)이 어떤 행위의 변화 또는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낮으면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적인 어려움의 가능성을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저해하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자극을 받게 되어 그 상황에 필요한 주의력을 갖고 노력하게 된다(이지원, 1988; Bandura, 1986).

여러문헌에서 자기효능감이 운동의 수용과 지속(Sallis 등, 1986), 통증환자의 대처행위(김파이, 1995; 박춘자, 1995), 자가간호행위(구미옥, 1994), 통증조절(Manning & Wrightn, 1983), 식사와 운동의 이행(McCaul 등, 1987), 건강증진 실천 가능성(Becker & Janz, 1985), 건강증진행위(오복자, 1994; 오현수, 1993)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이미라, 1996).

자기효능감과 흡연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Glasgow(1985)는 2개의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과 금연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자기감시, 자극통제, 목표설정, 회환, 문제해결, 재발 예방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첫 번째 연구에서 자기효능과 금연행위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두번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과 금연행위의 예측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Janz 등(1987)은 자기효능을 강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금연행위를 측정하여 중재 1개월, 6개월후에 실험군에서 금연자수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Colletti 등(1985)은 대상자들이 금연을 실시한 후 사회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성공적으로 금연한 사람들에 비해 재발한 사람에게는 낮은 자기조절 효능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게 인식한 사람에게서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신성례(1997)는 흡연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주 동안 적용하였는데 자기조절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교육한 실험군과 일반금연 프로그램으로 교육한 대조군 사이에서 흡연을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흡연 정도와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 흡연하는 청소년에게 자기조절 전략의 숙달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김혜원(1999)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흡연 미경험자가 흡연 경험자에 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어떤 행위의 선택과 지속, 노력의 정도와 그 행위의 지속기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사고유형과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며, 미래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andura, 1986).

따라서 자가효능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성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졌고 미래의 금연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여성흡연자들에게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겠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1개 대학교와 지방소재 1개

보건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80명이며 그중 263명의 설문지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환경적 요인 관련 24문항과 자기효능감 측정 14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환경적 요인 측정

환경적 요인은 가족 관련 특성, 사회관련 특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으로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중 특정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17문항 중 수정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여 이지원(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행동의 시작, 노력,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5점 Likert type의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자신이 없음'을 0점, '완전히 자신이 있음'을 4점으로 하여 0점에서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였다.

####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1) 환경적요인의 특성과 흡연 여대생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2)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earman's rho,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여대생의 흡연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4)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전체 여대생에 확대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V. 연구 결과

1. 환경적 요인의 특성과 흡연 여대생의 특성

대상자는 263명이며, 흡연율은 17명(6.4%)였다.

1) 가족관련 특성

‘아버지의 흡연정도’에서는 147명(55.9%)의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흡연정도’는 9명(3.4%)의 어머니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흡연정도’에서는 83명(31.6%)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169명(64.3%), 중하가 38명(14.4%), 중상이 36명(13.7%)으로 나타났다(표 1-1).

2) 사회적 특성

‘가장 친한 친구들의 흡연정도’에서는 37명(14.1%)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은 ‘아울리지 않는다’가 193명(73.4%), ‘1시간 정도’가 36명(13.7%), ‘2시간’이 10명(3.8%), ‘3-4시간’이 13명(4.9%), ‘5시간 이상’이 11명(4.2%)이었다. ‘평소 술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정도’에서는 매일이 3명(1.1%), 가끔이 211명(80.2

%)이었고, ‘미래의 금연에 대한 생각’에서는 166명(63.1%)이 가지고 있었다. ‘금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가 53명(20.2%),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가 35명(13.3%), ‘책을 통해’ 24명(9.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1> 가족관련 특성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가족 관련 특성	아버지의 전혀 안 피움	116	44.1
	흡연정도 가끔 피움	48	18.3
	매일 피움	99	37.6
어머니의 흡연정도	전혀 안 피움	254	56.6
	가끔 피움	4	1.5
	매일 피움	5	1.9
형제의 흡연정도	전혀 안 피움	179	68.1
	가끔 피움	48	18.3
	매일 피움	35	13.3
가정의 경제상태	상	4	1.5
	중상	36	13.7
	중정도	169	64.3
	중하	38	14.4
	하	16	6.1

3)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에서는 심폐관련 98.1%, 소화기계 관련 81.4%, 평균수명 단축관련 93.5%, 조기시작의 유해성 관련 94.7%, 여성 불임관련 86.7%, 태아관련 98.7%, 여성질환(부인 파질환)관련 87.8%, 자녀의 흡연 가능성 관련 79.5%로 평균 90%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흡연 여대생의 특성

흡연자에 대한 내용에서는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시기’는 16세, 17세가 1명, 19세, 20세, 21세가 각각 5명이었으며, ‘흡연동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가 7명, ‘호기심으로’가 5명,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가 2명, ‘남성의 흡연에 대한 반항심으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흡연량’은 2개가 5명, 4개가 6명, 5개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양상’은 ‘가벼운 흡연’이 10명, ‘깊은 흡

<표 1-2> 사회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명)	백분율(%)
사회 관련 특성	친구들의 흡연정도	대부분 담배를 피운다		5	1.9	
		피우는 친구와 피우지 않는 친구의 비율이 비슷하다		32	12.2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25	85.6	
	담배 피우는	0	193	73.4		
	친구와	1시간 정도	36	13.7		
	어울리는 시간	2시간	10	3.8		
		3시간-4시간	13	4.9		
		5이상	11	4.2		
		음주와	전혀 안함	49	18.6	
	약물사용정도	가끔 사용	211	80.2		
매일 사용		3	1.1			
미래 금연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음	166	63.1			
	없음	74	28.1			
금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	매스컴을 통해		53	20.2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35	13.3		
	책을 통해		24	9.1		
	주변의 권유		13	4.9		
	기타		75	28.5		

연'이 7명이며, '흡연장소'는 카페에서 7명, 화장실에서 5명, 집에서, 학교에서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후 건강상태의 변화'에서는 '느끼지 않는다'가 7명, '체중감소'가 6명, '호흡기계감염', '피부색의 착색'이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가 10명, '부정적이다'가 7명, '자신의 흡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긍정적'이 4명, '부정적'이 13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흡연을 부모님께서 아실 경우' '몹시 화를 내고 절망하실 것이다'가 7명,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신다'가 4명, '조금화를 내실 것이다'가 3명, '관심없다', '용납한다'가 각각 1명이었다(표 1-3).

2.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은 12점에서 53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1.04(±8.84)점으로 중이상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여대생의 흡연은 '아버지의 흡연정도', '어머니의 흡연정도'와 관련성이 있고( $r=.16, p<.05$ ;  $r=.25, p<.01$ ), '형제의 흡연정도'와의 관련성은 없는 반면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5, p<.01$ ). '담배 피우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평소 술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정도'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미래 금연에 대한 생각'에 따른 여대생의 흡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태'와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여대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14, p<.05$ ).

'흡연관련 지식'과의 관계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 p<.01$ )(표 3).

4. 여대생 흡연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여대생의 흡연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표 1-3〉 흡연 여대생의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명)	백분율(%)
흡연 여대생	첫 흡연 시기	16	5
		17	5
		19	29.4
		21	29.4
		22	29.4
흡연 동기	호기심	5	29.4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7	41.2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2	11
	남성의 흡연에 대한 반항심으로	1	5
	기타	2	11
1일 평균 흡연량	1	1	5
	2개	5	29.4
	4	6	35.3
	5개이상	5	29.4
흡연양상	가벼운 흡연	10	58.8
	깊은 흡연	7	41.2
흡연장소	카페에서	7	41.2
	화장실에서	5	29.4
	집에서	3	17.6
	학교에서	2	11
흡연후 건강상태의 변화	느끼지 않는다	7	41.2
	체중감소	6	35.3
	피부색의 착색	2	11
	호흡기계감염	2	11
자신의 흡연에 대한 생각	긍정적이다	10	58.8
	부정적이다	7	41.2
자신의 흡연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	긍정적이다	4	23.5
	부정적이다	13	76.5
부모가 자녀의 흡연에 대한 태도	몹시 화를내고 절망	7	41.2
	피우지 말라고 타이름	4	23.5
	조금 화를 내심	3	17.6
	관심없음	1	5
	허용함	1	5

〈표 2〉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정도

내 용	최 하	최 고	평 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정도	12	53	31.04	±8.84

〈표 3〉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여대생 흡연정도
아버지의 흡연정도	.16*
어머니의 흡연정도	.25**
친구의 흡연정도	.35**
가정의 경제상태	.14*
흡연관련 지식	.17**

\*\*p<.01 \*p<.05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 p<.01$ )(표 4).

〈표 4〉 여대생 흡연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자기효능감
여대생의 흡연	.25*

\*p<.01

5. 여대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의 흡연과 관련된 변수들 중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가 13%의 설명력을 보였고, ‘어머니의 흡연정도’가 18%, ‘자기효능감’이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표 5).

〈표 5〉 여대생 흡연모델

	요 인	$\beta$	R <sup>2</sup>
흡연 Model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	.33**	.13
	어머니의 흡연정도	.23**	.18
	자기효능감	.21**	.22

\*\*p<.01

### V. 논 의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흡연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을 알아보면, 여대생의 흡연은 ‘아버지의 흡연정도’, ‘어머니의 흡연정도’와 관련성이 있어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수동적 흡연으로 인해 이후 흡연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연구결과( Brink, 1988)와 김종성(198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흡연시 더욱 흡연을 많이 한다는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부모의 흡연은 자녀에게 흡연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며, 특히 어머니의 흡연은 여대생이 흡연을 할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모의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의 금연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하겠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여대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용돈을 많이 쓰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는 서일(198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와도 관련성이 나타나 청소년 흡연과 같이 친구의 영향력이 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여대생 흡연과 흡연관련 지식과의 관계에서는 흡연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정보의 제공, 특히 여대생은 임신시 임신모와 태아의 건강과 자녀의 혈액암 유발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흡연자에 대한 내용에서는 첫 흡연시기가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흡연동기는 ‘스트레스의 해

소’가 가장 많고, ‘호기심’, ‘체중감소’, ‘남성의 흡연에 대한 반항심’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스트레스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최근에는 IMF로 인해 여대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여대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송미숙(1987)의 여대생 흡연에 관한 연구에서도 흡연동기는 정신적 긴장해소, 호기심이였다. 흡연양상은 ‘가벼운 흡연’으로 입안에서만 연기를 머물게 하고 내뿜는 입담배 형태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흡연장소는 카페, 화장실등의 순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건강상의 위협이 되며, 이는 또한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의 영향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여 여성문제가 가려질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더욱 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사회문제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흡연후 건강상태의 변화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자신의 흡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이 건강에 주는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또한 여대생은 젊음으로 인해 건강에 대해 자만하고 자신에게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미래 금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정보제공으로 스스로 금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여대생은 체중감소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마른 체형이 선호되면서 흡연이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김상철(1987)은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그 체중이 평균 2-3Kg적은데 이는 흡연이 식욕감퇴를 일으키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조직의 산소결합능력과 산소압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대생 흡연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을 하는 고등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던 이지원(199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여대생을 위한 금연중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고려가 필요하겠다.

여성흡연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흡연율에 비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은 신체기능이 최고의 시기로 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느끼지 못할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담당할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흡연행위예방과 금연의 유도는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에서 여대생의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흡연정도, 어머니의 흡연정도,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 가정의 경제상태, 흡연관련 지식에 대한 고려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변화할 수 있는 교육,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통한 금연 유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건강 측면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여대생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흡연행위예방과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1개 대학교와 지방소재 1개 보건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후 설문지를 배포 후 수거하였다. 연구도구는 환경적 요인 관련 24문항과 자기효능감 측정 14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흡연은 아버지의 흡연정도, 어머니의 흡연정도, 친구의 흡연정도와 관련성이 있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낮고 흡연관련지식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여대생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대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친한 친구의 흡연정도, 어머니의 흡연정도,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대생 흡연과 관련성을 나타낸 환경적 요인들과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금연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김남성 (1985). 인지적 행동수정. 교육과학사, 63-93.

김문실, 김애경 (1997). 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4), 843-856.

김문실, 김애경 (1997). 일부 여대생의 흡연정도 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2), 315-328.

김신정 (1997).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27(2), 264-274.

김애경 (1994). 건강행위에 대한 한국 청년의 주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철 (1987). 금연대책. 대한의학협회지, 30(8).

김종성, 이민동, 각기우, 이혜리, 윤방부 (1989).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양상. 가정의학회지, 10(5), 11-21.

김혜원 (1999). 여대생의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1), 48-60.

남정자 (1997). Life specific well women health care : Comprehensive approach. 대한간호학회 · 여성건강간호학술대회, 3-36.

맹광호 (1988).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0(2), 138-145.

문선영 (1995). 흡연과 금연 체험의 현상연구. 대한간호, 34(2), 42-44.

박오장, 홍미순, 소향숙, 장금성 (1988). 당뇨교육이 당뇨병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8(3), 281-288.

- 서 일, 이해숙, 손명세, 김일순, 신동철, 최영미 (1988).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219-229.
- 송미숙 (1987).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서울 시내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례 (1997).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라 (1997).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156-168.
- 이수경 (1987).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의 따른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1998). 청소년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매희, 진행미 (1995). 여성의 건강과 운동. 보경문화사.
- 전상임, 박용우, 김철환, 정유석 등 (1992). 의사의 금연교육이 환자의 흡연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6).
- 정향미 (1998). 흡연행위 예측을 위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4(1), 128-149.
- 최은숙 (1995). 중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5). 1995년 중·고교생 흡연실태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집.
- Anderson, M. R. (1985).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on rel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9, 286-293.
- Bandura, 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Hall.
- Bandura, A. A. (1977b).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 Brink, S. G. et al. (1988). Developing comprehensive smoking programs in school. J of School Health, 58(5), 177-180.
- Coelho, R. J. (1984). Self-Efficacy and Cessation Smoking Psychological Report. 54, 309-310.
- Colletti, G., Supnick, J. A., & Payne, T. J. (1985). The smoking self-efficacy questionnaire(SSEQ): Preliminary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Behavioral Assessment, 7, 249-260.
- Condiott, M. M., & Lichenstein, E. (1981) Self-efficacy and relapse in smoking cessat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648-658.
- Fardy, P. S., Calrk, R. E., Amodio, L. T., Hurster, G., McDermott, M. H., & Magel, J. R. (1995). Health promotion in minority adolescents: A healthy people 2000 pilot study. J. Cardpulm Rehabil. 15(1), 65-72.
- Fieldong, J. E. (1985) Essential elements of school 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J of School Health, 59(5), 181-188.
- Glasgow, R. E., Klesges, R. C., Mizes, J. S., & Pechacek, T. F. (1985). Quitting smoking: Strategies used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success in a stop-smoking contra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905-912.
- Gortner, S. R., & Jenkins, L. S. (1990). Self-efficacy and activity level following cardiac surger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1132-1138.
- Hicky, M. L., Owen, S. V., & Froman, R. D. (1992). Instrument development: Cardiac diet and exercise self-efficacy. Nursing, 41(6), 346-351.
- Janz, N., Becker, M. H., Kirscht, J. P.,

- Eraker, S. A., Billi, J. F., Woolliscroff, J. Q. (1987). Evaluation of a minimal contac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in an outpatient setting. *AJPH*, 77(7), 805.
- KBS 9시 뉴스(1999, 5월 31일).
- McDermott, et al (1992). Multiple correlates of cigarette 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April, 62(4), 146-150.
- Oh, H. S. (1993). Health promoting behaviors &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Dissertation of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enner, M. (1989). Economic incentive to reduce employee smoking : A health insurance surcharge for tobacco using state of kansas employees. 4(1), *Psychological Review*, 4, 191-215.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9).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 25years of progress-areport of t he surgeon general. *DHHS Publication No(CDC)*, 89-8411.
- Yarsheski, A., & Mahon, N. E. (1989). A casual model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ach and replication. *Nursing Rrsearch*, 38(2), 88-93.

## Abstract

Key concept : Environmental factors,  
Self-efficacy

### A Study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Self-efficacy in Female College Student Smokers

Kim, Kyoung Seon\* · Lee, Ji Won\*

For the past 10 years, the number of male smokers has dwindle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female smokers has increased abruptly. Cigarette smoking is more hazardous to a woman than to a man because it can affect her health and her fetus during pregnancy.

Many studies show that cigarette smok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determining the mortality and the morbidity of various kinds of diseases such as lung cancer and pharyngeal cancer. But, it is also known to be one of the risk factors we can handle and prevent eas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63 female nursing students in Seoul and Chonbuk Province. Using questionnaires, we were collected data from December 1 to December 10 1998. The questionnaire included 24 ques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and 14 questions related with self-efficacy.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SPSS ver. 8.0(SPSS Inc. 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Cigarette smoking in women was influenced by her family or friends. That

---

\*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s to say, the higher number of her friends or family members who smoked cigarettes, the more likely a woman was to become a smoker. Economic status and knowledge level about the risks of cigarette smoking were also related to women smoking. So, women with lower levels of economic status and less knowledge about the risks of cigarette smoking were the more likely to become smokers.

2) Woman with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were less likely to become smokers.

3) The factors influencing a woman's smoking were whether her friends smoked, whether her mother smoked and her self-efficacy in that order.

Environmental factors, self-efficacy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smoking in women. It is suggested a quit-smoking program for women college students, be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se environmental factors and self-efficacy.